

2012 새해에는

최종태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수도권 기업 호남 적극 유치”

“광주·전남 속원사업인 장성 나노산단이 8년 만에 첫 삽을 뜨고, 첨단산단 2단계가 오는 8월 공급되면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은 최근 본부장실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의 입지 적기 공급을 위해 오는 3~4월경 장성 나노산단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본격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노산단은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원 90만1865㎡에 총 사업비 1355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명과학기술(BT)·환경기술(ET) 등 나노기술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육성된다.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단공이 맡게 됐다.

최 본부장은 “산업단지는 호남권 경제 생산의 70%,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인 광주 광산업, 대불 중형조선, 군산 자동차부품용 중심을 기술 및 구조 고도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중소규모 산업단지 및 산업공



광산업 등 기술 고도화

테마형 클러스터 발굴

간을 개발해 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입주기업 간 자원재활용 등을 도모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공장설립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단지 개선 프로젝트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근로생활의 질)밸리 조성 사업'을 익

산과 군산산단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

광주 첨단산단에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첨단체육공원에 150명 규모의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은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520㎡ 부지에 연면적 700㎡ 규모로 3월 착공한다.

입주기업 지원 사업과 우수 기업 유치에도 전격한다.

8년째 접어든 클러스터 사업은 해양레저·풍력 등 호남의 특성에 맞는 테마형 클러스터를 발굴해 지원한다.

또 LED·광통신 등 기존 클러스터는 다양한 융·복합 과제와 초광역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 광주·여수·전주에 개설된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호남권 유치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 본부장은 특히 “올해 산단공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한 수도권 기업을 발굴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에 나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통업계 ‘설 대목’은 없었다

지역 백화점, 매출 2.5~5% 소폭 신장
한우 판매 두드러지고 실속형 상품 인기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설 특수를 누리지는 못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매출 부진을 타개하고 설 특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지만 올 선물 매출이 줄었거나 한 자리수 성장에 그치는 등 기대했던 매출신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4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올 선물 매출 집계 결과 전년 대비 2.5~5%의 소폭 매출 신장을 보였다.

광주신세계(9~23일)는 전체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5% 미만 소폭 신장했으며 이 가운데 전통적인 선물 인기상품인 한우구이세트, 사골세트 등 육류선물세트가 20%이상의 큰 신장률을 보였다.

한우세트의 판매가 두드러진 이유는 최근 소값 폭락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우리 한우 먹어주기’ 열풍이 부는 한편, 지난해보다 판매 가격 역시 소폭 떨어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 광

주신세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음 인기 상품으로는 홍삼정, 비타민 등의 건강선물세트로 지난해에 이어 약 16% 신장했다.

반면 청과세트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한 산지 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올 여름 잦은 비와 이상 기온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판매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현지 바이어가 직접 준비한 지역특산물 세트도 선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 청보리 한우, 백양사 오손하 대봉꽃등 등은 행사 진행 전부터 예약 문의가 폭주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선물세트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2% 감소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전년대비 기업들의 대량구매가 많이 줄었으며, 실속형 상품을 찾는 이마트 고객들이 늘면서 구매 단가가 많이 낮춰졌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6~22일)은 설 선물 매출이 전년 설 매출 대비 2.5% 소폭 신장했다. 품목별 매출 신장률은 정육선물세트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선물세트 0.5%, 수산선물세트 0.1% 순이었다. 하지만 청과 선물세트와 주류·커피 선물세트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7%, 7.5%의 하락률을 보였다. 특히 올 해는 지난해 가장 인기가 끌었던 과일 선물세트를 제외하고 정육(한우) 선물세트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6~22일)은 설 선물 매출이 전년 설 매출 대비 2.5% 소폭 신장했다. 품목별 매출 신장률은 정육선물세트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선물세트 0.5%, 수산선물세트 0.1% 순이었다. 하지만 청과 선물세트와 주류·커피 선물세트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7%, 7.5%의 하락률을 보였다. 특히 올 해는 지난해 가장 인기가 끌었던 과일 선물세트를 제외하고 정육(한우) 선물세트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이승기 광주 온다
내일 삼성프라자 동광주점
삼성전자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지펠아사 김치냉장고 모델인 이승기와 함께 ‘빛고를 김치맛이 제일 맛있다!’라는 주제로 광주시 북구 두암동 삼성디지털프라자 동광주점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삼성디지털프라자 동광주점은 1, 2층 약 300평의 대형 매장으로 삼성전자서비스(3층)가 함께 입점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광주지역 최대 규모 삼성전자 전문 매장이자, 또 동광주나들목(IC)과 가까워 광주는 물론 담양·화순 등 인근 시·군에서도 접근이 쉽다.

이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이승기가 현장에서 사인한 지펠아사 김치냉장고 10대를 한정 판매한다.

또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고객과 방문고객 각 50명에게 이승기 사인 CD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이승기 광주 온다

세뱃돈 불리고 경제관념 키우고

광주은행 등 어린이 우대금리 상품 한시 판매

“올해 우리 아이 주머니에 들어올 세뱃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세뱃돈을 불리고 자녀에게 용돈 관리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을 앞두고 관심을 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설이나 추석처럼 특별한 날에 돈을 넣으면 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신한 키즈플러스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세뱃돈을 입금하는 어린이 고객에게 우대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키즈플러스 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 상품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입 대상이다.

광주은행은 2월 6일까지 ‘KJB 아이사랑월별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만 18세 이하의 고객에게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우리은행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아이맘 자유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입하면 금리를 각각 연 0.5%포인트 더 주고 여기에 ‘주태정액저축’을 가입하면 추가로 연 0.5%포인트를 준다.

가입 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3~5년이다. 인터넷 여하강좌 회원인 ‘애니스타’의 동영상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세뱃돈을 가지고 오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은행도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Kids&Teens 적금’에 가입되는 돈에 연 0.1%포인트를 더준다.

어린이가 특별한 날에 생기는 용돈을 저축하면 우대율을 주는 ‘원더풀 산타 적금’이 씨타은행에도 있다. 설, 추석, 어린이날, 가입자 생일을 전후해 5영업일 이내에 돈을 넣으면 약정이율에 연 0.2%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얹어준다.

/최재호기자 lion@r-연합뉴스

백화점·대형마트 수수료 공개

정부, 판촉사원 인건비까지 매년 공개 ‘물가잡기’ 나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추이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이 매년 공개된다. 시장 평가에 의해 유통 대기업의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박재안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판매 부진

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추이는 물론 판촉사원 인건비 등 중소기업에 추가 부담 실태 등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를 발미로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형 유통업체 대

표와 지난해 9월6일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도 올해 상반기 내 점검해 이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단순히 몇 개의 중소기업업체가 도움을 받았는지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등 실질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확산시키고 우수업체에는 직권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JAU (자유투어) travel agency, featuring various tour packag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s like China, Japan, and Europ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icing for different tour types.

Footer section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of the travel agenc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locations like Bukgu, Sangmu, Suwan, Donggu, Namgu, Cheondan, Chungjang, Hwangnam, and Gwangcheon.